

Jacques REVEL

프랑스 고등사범학교에서 수학하였고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을 거쳐 현재 프랑스 국립사회과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아날誌』의 사무국장과 공동의장을 역임하였다.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는 *La Grande Peur, suivi de Foules révolutionnaires*(1988), *Histoire de la France*(1989), *A Invenção da Sociedade, França Moderna*(1990), "Naissance de la clinique: le moment historiographique(1992)", "La Royauté sacrée: éléments pour un débat (1992)" 외 다수가 있다.

역사와 사회과학 : 불안정한 만남*

자크 르벨

‘역사와 사회과학’: 만일 프랑스 학술원의 콩쿠르가 오늘날에도 계속 남아있다면 이것은 그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프랑스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이처럼 끈질기게 토론의 대상이 된 논증도 없을 것이다. 1894년에 폴 라콤브 Paul Lacombe의 『과학으로 간주한 역사학에 대하여 *De l'histoire considérée comme science*』가 출판되었다. 이 책은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일련의 유사한 저작들 중 첫번째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94년에는 『아날 *Annales*』지가 루시앙 페브르 Lucien Fèbvre와 페르낭 브로델 Fernand Braudel이 2차대전 직후 이 잡지에 부여한 유명한 副題 《경제, 사회, 문명 *Economies, Sociétés, Civilisations*》 대신 《역사, 사회과학 *Histoire, Sciences Sociales*》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쓰게 되었다. 새로운 표현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대단히 오래된 것이다. 이 100년의 기간 동안 이 주제를 충실히 살피운 제안들이나 논쟁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손쉽게 대강의 목록을 작성해 볼 수 있을 터인데 철저히 다 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는 중요한, 그리고 수십건의 — 아마도 수백건 —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찾게 될 것이다.

* 이 글은 자크 르벨 교수가 교환교수로 서울대학교를 방문하면서 준비한 글이다. 다음에 실린 “인간과학의 통일성 구축을 위하여”와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에서 차이가 있기에 먼저 실는다.

그러나 그와같은 연속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과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연속성을 보고 우리가 다루는 문제가 그 용어, 더 나아가서 그 해결책들이 이미 확립된 고전적인 문제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 문제는 정반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한 세기 동안, 역사와 사회과학이 만나는 곳은 어렵고 불안정한 논쟁의 장소였으며, 그것은 오늘날에도 완전히 열린 채 있는 곳이다. 그것은 모순에 찬 성격을 띠고 있다. 사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마치 역사가 다른 사회과학들에 대해서 특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있었다. 그 이유는 역사가 결국 사회과학의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 세대의 역사가들이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나 일단 그 원칙만이 제시되었을 따름이지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쌓아올려야 했다. 모든것, 즉 상이한 학문분야 간의 공존과 교환에 관한 양식들 말이다. 이 점에서는 — 다시 말하면 실제 학문적 실천들을 규정하고 조직하는 점에서는 — 자명했던 것이 혼동되어 버리고 만다. 역사와 사회과학이 공동의 대상, 관심,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일반적인 제안 뒤에는, 심층적으로 대단히 다르게 분화되어 버린 여러 계획들, 인식 모델 및 지식의 조직 모델들이 연속적으로 나열될 따름이든지 혹은 그것들간에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상반적인 모습들을 쉽게 요약하여 주는 말이 있다. 학문간 상호연관성 *interdisciplinarité* — 이 용어는 앞으로 '상호연관성'으로 통일하여 번역할 것이다 — 이 그것이다. 다양한 형태를 가진 이것은 그 어떤 기대를 가리키는데 쓰이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 그 목적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를 헤아리게 해준다. 상호연관성은 주의주의적 *volontariste*이고 기대에 찬 *votif* 슬로건이지만 (늘 이 점을 생각해야 한다) 동시에 학자들에게 양심의 거리낌, 아이러니를 가져다 준다(상호연관성이란 결코 실현된 적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긴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서 아카데미한 수사만 늘어놓는 것 이상의 것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긴장은 사실

한 세기라는 장기간 동안 연속해서 요구해온 지적 계획 — 그러나 그 생각대로 실현하는 데에는 비연속적이었던 계획 — 과 나누어 생각할 수 없다. 이 계획이나 또 그것이 불러온 논쟁은 꼭 프랑스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우리는 그와 유사한 것을, 연대상으로 다소간 차이가 나지만 독일이나 이태리, 특히 미국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거의 서로 닮지 않았으며, 또 그것들 간에 (거의) 교류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각각의 경험이 특정한 문화적·제도적 맥락 속에서 형태와 의미를 갖추었으며, 그 맥락에 따라 각각의 경험이 고유한 특징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 특징을 잡아내려고 하겠지만, 하여튼 프랑스의 것이 어떤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다음 세가지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경험은 다른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도 주의주의적이었으며, 그것은 다름아니라 인식론적이고 동시에 제도적인 공간을 건설하려는 반복되는 시도로 나타난다는 점; 다른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도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전개되었으며 어쨌든 외국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었다는 점; 다른 사회과학들에 대해 역사학에 가장 우선적인 위치를 부여한 것은 오직 프랑스만의 경험이었다는 점. 이러한 독창성을 이해하려면 (역사와 사회과학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여러 순간들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이제 19~20 세기의 전환기로 되돌아가 보자. 아직 연륜이 짧았던 제3공화정이 재건한 대학에서 (그때 ‘뉴벨 소르본느 Nouvelle Sorbonne’는 그 빛나는 상징이었다), 역사학 분야는 압도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우선 그것은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의 우월성이었다. 역사학은 독일에 대한 패배로 치명상을 입은 민족의 정체성과 기대를 명확히 밝혀주어야 한다는 핵심적인 사명을 띠고 있었다 — 라비스 Lavissee를 보라. 그것은 또 과학적인 차원에서의 우월성이었다. 역사학은 무엇보다도 ‘실증적인’ 방법, 박학한 요구사항들을 구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수를 준비하는 이 나라의 지적·도덕적 재무장에 틀림없이 공헌하게 될 학술적인 이상을 구현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우월성이었다. 이전부터 정통성을 갖추고 있던 이 학문은 게다가 급속한 전문화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것은 전공과정과 학사기준을 재정립하였으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당시에 대학이 일대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이익을 누렸다. 역사학의 방법은 — 정관사를 붙여 **그 방법은** la méthode이 된 — 누구나 반쯤 의무적으로 보아야 하는 참조물이 되었다. 그 핵심은 박학한 텍스트 비판이다. 학생들을 위한 기본 원칙들을 정리하여주고 있는 랑글르와 Langlois와 세노보 Seignobos의 『역사연구입문 *Introduction aux études historiques*(1898)』이 고전적인 예이지만 이 책의 모델은 동시에 많은 문학연구에 대해서도 지침이 되었다. 역사학과 대비하여 다른 사회과학들은 아직 자신의 위치도 제대로 못찾고 인정받기도 힘든 신참자에 불과하였다. 지리학을 보자. 비달 드 라 블라슈 Vidal de la Blache의 열성 때문에 통일된 학문 영역으로 뒤늦게 자리잡은 후 지리학은 갈길을 잘 찾아나갔고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의 영향권 아래에서 동생 취급을 받았다. 경제학은 전통적으로 법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역시 종속적인 위치를 차지할 따름이었다. 심리학은 의학 분야(실험을 하는 분야에 관하여)와 철학 분야로 나뉘어져 있었다. 언어학은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시기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성립한 사회학은 아마도 가장 역설적인 성격의 성공을 거두었다. 대단한 이론적 확립을 이루고 — 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뒤르켐의 업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1898년부터 나오는 『사회학 연감 *l'Année sociologique*』이 보여주는 바처럼) 비판적 반성과 연구조사의 분야가 크게 증가했지만 사회학은 아카데미의 세계에서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않았다. 뒤르켐과 그의 제자들이 겪은 역경에 찬 역정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¹⁾

1) G. Weisz, *The Emergence of Modern Universities in France, 1863-1914*, Princeton, 1983; W. R. Keylor, *Academy and*

사회과학의 통합을 주장하는 제안이 처음 나온 것은 바로 이 측면, 인정받지 못하고 극도로 소수파인 학문 영역으로부터이다. 여러 견지에서 볼 때 그것은 일종의 인식론적인 폭력행사였다. 비판적인 박식이라는 방법론에 대해 뒤르켐과 그의 제자들은 훨씬 더 야심적인 사회학적 방법론의 규칙을 대비시키고, 직업의 코드화에 대해서는 사회과학들의 조직 계획을 대비시켰다. 차라리 '(單數로서의) 사회과학 *la science sociale*'이라 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학은,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규범적인 인식론적 범주를 정의하고 동시에 전체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는 기껏해야 역사학의 불규칙성이라든가 국지적인 기술 능력들이 보이는 다양성같은 것을 제외하면 학문간의 분업을 정당화해주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것들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전체적인 과학적 계획에 비하면 부차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개별 학문의 실제 수행은 사회학자가 정의하는 새로운 과학 공간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고, 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의 약속들을 고쳐서, 이제 그들에게 부가하는 규범 요강에 맞추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뒤르켐주의자들과 — 이들을 대변하는 사람은 흔히 프랑스와 시미앙 François Simiand이었다 — 지리학자, 심리학자, 특히 역사학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에 찬 대치가 여러 차례 일어났다.²⁾ 역사학자들에 대한 반격으로 시미앙은 역사학의 과학성 (내지 비과학성)에 대한 국제적인 광범한 논쟁을 이용하였다. 그는 이것을 수행하면서 이

Community: The Foundation of the French Historical Profession, Cambridge, Mass., 1975; F. K. Ringer, *Fields of Knowledge. French Academic Culture in Comparative Perspective, 1890-1920*, Cambridge-Paris, 1992. 사회학에 대해 참조할 만한 것으로는 다음의 것이 여전히 핵심적이다: V. Karady, "Durkheim, les sciences sociales et l'université: bilan d'un semi-échec", *Revue française de sociologie*, 1976, pp.267-311.

- 2) 여기에서 참조한 텍스트는 시미앙의 다음 논문이다: "Méthode historique et science sociale", *Revue de synthèse historique*, 1903, pp.1-22, 129-157.

문제에 대한 용어를 바꾸어서 과학성을 주장하려면 그것이 박학에 근거해서는 안되고 실증적인 과학을 구성하는 규칙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사회현상에 대한 역사학이 없다는 것과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이 없다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연구 대상으로서 그 현상들을 파악하기 위해 하나의 방법론, 즉 역사학 방법론을 이용하는 과학적인 분야가 있다.

따라서 역사학의 특수성은 재정의되었으며 결국 제한된 것이다. 역사학의 특수성은 사회학적인 실험 앞에 시간의 차원을 개방할 수 있고 개방해야 했다.

따라서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상호연관성이라기 보다는 무-분야성 a-disciplinarité이라고 불러야 할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학문분야들은 전체 계획 가운데에서 불가피하게 전문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학 연감』에서나 혹은 개인적 저작들에서 뒤르켐의 제자들은 그러한 예를 보여주었다. 당대의 과학적인 업적들 중에서 그들의 요구에 맞는 것을 체로 치듯 엄선하기도 하고, 그들 자신이 필요한 능력을 갖춘 후 특별한 연구 분야에 뛰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 통합 계획은 곧바로 앞날의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이 실패가 드러내 보여준 것은 집단적인 세력관계였다. 사회학은 아무리 찬란해 보여도 아무리 공격적이라고 해도 자기의 정책 수단이 없었다. 일차대전 중에 뒤르켐주의자들이 무수히 죽기 이전에 이미 저항의 징표들이 뚜렷했다. 갑자기 너무나 많은 기성의 입장과 관습을 문제삼으려는 제안들 일반에 대한 보수적인 저항의 성격이 물론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이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이성의 위기'를 가늠한 사람들은 사회학자들이 요구하는 과학성 — 자연과학들의 과학성 — 의 모델이 이미 폐기된 것이며 이제 새로운 기반 위에 재건축을 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사람들로부터도 저항이 나온 것이다.

역사와 사회과학들 간의 관계를 조직하기 위한 또다른 제안이 이때 윤곽이 잡혀가고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리고 특히 이 논쟁으로부터 자리매김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 제안은 뒤르켐의 계획에서와 같은 인식론적인 명료성이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결코 가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것은 과학성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경험적 방식을 제안하는 것, 즉 진행중인 움직임을 증명하는 것에 가깝다. 1900년에 앙리 베르 Henri Berr는 『역사 종합 잡지 *Revue de synthèse historique*』를 창간하였다. 중국적으로 그가 수행한 다른 사업들도 모두 그렇지만 이 새 잡지 역시 인식의 백과사전적 종합이라는 과도하기 짝이 없는 계획을 수행하는 데에 봉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건조물 자체보다는 그것을 수행하느라고 견지한 실천 방식이 더욱 중요하였다. 그것은 너무나도 자주 서로 잘 모르던 과학적 실천 사이의 만남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 그리고 여기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비록 베르 자신이 정리·구획에 대한 집착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은 미약한 정도로만 조직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베르는 지식의 종합이 이루어지는 곳은 더 이상 철학이 아니라 역사학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학은 그의 프로그램 중에서 중심적인 —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직하는 — 위치를 차지하였다.

마르크 블로크와 뤼시앙 페브르가 1929년에 창간한 *아날*지는 이 계획을 세련되게 만들고, 또 그로부터 남아있던 필요없는 찌꺼기들과 세속적인 부착물들을 제거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모자라던 대학의 정통성을 부여하면서 그것을 계승한 것이다. 블로크와 페브르는 — 그들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한 것은 아니지만 — 우리가 여기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제도의 좋은 예들을 보여준다. 그들 모두 초기 뒤르켐 움직임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거기에 그들의 지적인 빛을 지고 있

다. 그들이 사회사를 선택하게 되고 학문적인 고립화를 거부하는 것은 초창기의 『사회학 연감』을 들락거릴 때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이 새로운 정통, 새로운 학파에도 가담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박학의 방법에 대한 비판에는 가담하였으나 그렇다고 사회학적 인식론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규칙들을 기꺼이 받아들지도 않았다. 역사를 둘러싼 학문 분야들간의 교환을 조직하기로 선택한 것이 여기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블로크와 페브르는 역사가이며 그들이 만든 잡지의 처음 제목들이 『경제사 및 사회사 연보 *Annales d'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929년부터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이중의 만남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사회과학들이 보여주는 바처럼 현재에 대한 다양화된 접근들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이해에 대한 모델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 사이의 만남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로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해석 사이의 만남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학문간의 만남의 축이 되는 것은 사회적 시간의 복합성이다. 이러한 재조직화는 또다른 의미있는 변화를 포함한다. 뒤르켐과 그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사회과학들이 있는 장 場을 통합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는 방법론 밖에 없었다. 그러나 역사가들에게 그것은 이 과학들이 공통으로 가진 것이라고 가정한 대상이 그런 것이었다. 그 대상은 다름아닌 사회 속의 인간이었다(그리고 오랫동안 프랑스에서 ‘사회과학’보다는 ‘인간과학 *science de l'homme*’이라는 표현이 우세하였던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모델이 그려졌다. 그것은 덜 권위에 찌지만 매력적이고, 더 경험적이며 나아가서 이것저것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한편 당장에는 훨씬 잘 작용하였다 - 비록 그렇게 된 데에는 그것이 훨씬 안심시켜 주는 것으로 보였다는 이유 때문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 임시적인 모델은 결국 오래 지속하게 된다. 아무리 간략히 소개하는 것이라고 해도 여기에서 20세기의 프랑스 사회과학의 역사가 어

떠하였는지를 끄집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사회과학들 중 대부분의 것이 대학교에서 인정받고 제도화하는 것은 뒤늦게, 1950년대나 1960년대에 들어가서야 이루어졌다는 점만 지적해두자. 역사학은 이러한 소수파가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보았다. 그것을 증명해주는 것으로는 아닐지 외에도 그것의 즉각적인 확장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 기관인 고등 연구원 제6부(경제학 및 사회학 분야 VI^e Section de l'E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기관은 뤼시앙 페브르의 후원 아래 만들어지고 오랫동안 페르낭 브로델이 주도하였으며, 1975년에 고등사회과학대학원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이 되었다. 오랫동안 역사가들이 이끌어온 이 기관은 그 경험적 노선을 보여주는 데에 적합하다.

상호연관성에 관한 오래된 두 개념에 대해서 말했던 것은 회고 취향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아주 최근까지도 빈번히 일어나는 - 물론 각각의 것은 심층적으로 변화된 맥락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 논쟁의 두 극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단일한 규범적인 인식론 주위에 모여드는 것은 흔히 소수 학문 분야들, 혹은 아카데미 체계의 주변에 밖에 진을 치지 못하는 (콜레주 드 프랑스 Collège de France 라는 위엄있는 주변부도 있긴 하지만) 학문 분야들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또한 본래 철학적인 수련과정을 거친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현상이었으며, 그것은 프랑스의 사회학자와 인류학자들에게서 지배적인 경우이다. 사정을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초까지 짧았지만 집중적이었던 구조주의 시기를 뒤르켐적인 야심이 새로운 용어를 통해 다시 등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동시에 이것을 비-역사학적인, 나아가서 반-역사학적인 이데올로기의 기치 아래 모인 사회과학들이 역사학의 보호로부터 해방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단일한 과학성의 모델을 가진 프로그램이 다시 나타나고, 여기에 저항하는 모든 학문적인 실천

들을 경험주의라는 지옥으로 던져넣는 것을 보았다. 반대로 역사가들은 끊임없이 실용주의적 개방이라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1958년에 발표된 브로델의 유명한 '장기지속'에 대한 텍스트가 그 예가 될 것이다³⁾. 그것은 이중의 차원에서 작용한다. 우선 사회적 사실들의 분석과 이해에서 시간 차원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사회과학들 가운데에 역사가 완강히 자리를 잡는다는 것을 회상시켜 준다. 그러나 또한 더 전략적인 차원에서, 또 앞으로 들이닥칠 위기를 아주 일찍 예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최소한의 개념—브로델의 표현을 빌자면 전세계적 *oecuménique* 성격의 —을 받아들이는 대신 학문분야간 상호연관성의 모든 실천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인간 과학 중 가장 적게 구조화된 역사학이 수많은 인접학문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교훈들을 인수하려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소박한 전망으로서 공동의 기반을 나눈다는 전망, 혹은 링구아 프랑카어 *lingua franca*와 같은 전망이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구조주의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에 충분치는 않겠지만 반대로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는 효과적으로 쓰일 것이다. 어쩌면 그 이상의 것으로서 바로 이 전망이 사회과학들의 영역에 대해 역사가들이 재정복을 주도하는 전략을 키워줄 것이다 — 그 재정복은 경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아마도 그것에 대해 명확한 인식도 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을 증명해주는 것은 일련의 잡종교배의 시도들이다 — 그것의 가장 불만한 예는 1970년대에 큰 성공을 거둔 역사인류학이다⁴⁾. 우리는 여기에서 사회과학들간의 세력관계 배분과 학문분야간의

3) F. Braudel, "Histoire et sciences sociales: la longue durée", *Annales ESC*, 4, 1958, 이 글은 *Ecrits sur l'histoire*, Paris, 1972, pp.752-753에 재수록되었다.

4) Cf. 이에 대한 예를 보고 싶으면 아날의 특집호 "Histoire et structure", 3-4, 1971을 보라. 보다 대중매체적인 증거로는 르 고프(J. Le Goff)와 노라(P. Nora)가 주관하여 만든 중간결산 프로그램을 출판한 공동

교환 규칙에 대해 전체적으로 틀을 다시 짜려는 단호한 노력을 읽을 수 있다. 아마도 아날의 사학사적인 전통은 선구적인 실험에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테지만, 그것은 개인적이고 고립적인 것으로 남아있다. 물론 마르크 블록의 것이 있고 (*Les Rois Thaumaturges*, 1924; *Les caractères originaux de l'histoire rurale française*, 1931; *La société féodale*, 1939-1940), 한 세대 뒤에는, 그들간에 아주 다른 성격을 보이는 뒤프롱 A. Dupront 또는 베르낭 J.-P. Vernant의 것이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완전히 또다른 규모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 가족과 친족관계, 종교, 경제, 정치 등 몇몇 중요한 연구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적인 정통성에 대한 염려없이 — 중요한 참고도서 목록에는 레비-스트로스는 말할 것도 없고 뒤몽 Dumont, 헤르츠 Hertz, 모스 Mauss, 폴리야니 Polyani, 샤야노프 Chayanov, 무라 Murra, 사린스 Sahlin 등 — 그뿐 아니라 일관성에 대한 염려마저 없이, 역사인류학은 사회과학이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영역에 역사가들이 출현하고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물론 역사인류학은 이것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1978년에 뷔르기에르 A. Burgière는, 우리가 사는 현재의 사회가 일직선적인 진보의 개념을 포기한 순간, 인류학이 ‘[과거로부터] 여러 상이한 변화의 절차들을 되찾고 그 목록을 작성하며 그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그 복수성을 확인할 필요’에 쉼어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시기에 인류학이 행하는 매력을 명확하게 합리화한 바 있다⁵⁾. 어쨌거나 자기 직종의 관습들에 대한 비판적인 복귀 역시 일대 팽창의 움직임의 기회였다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엠마뉘엘 르 르와 라뒤리 Emmanuel Le Roy Ladurie가 말하는 ‘역사가의 영역’ — 이 말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프로그램을 뜻

저작, *Faire de l'histoire*, Paris, 1974, 3 vol. 을 보라.

5) A. Burgière, "L'Anthropologie historique", in J. Le Goff, R. Chartier, J. Revel, *La Nouvelle Histoire*, Paris, 1978, p.61.

한다 — 이 과도하게 개방되는 것이 바로 이때이다. 그리하여 (역사학의) 방법과 대상의 증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당시에는 그 한계를 예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계절마다, 잡지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책들이 나와서 지치지 않는 창의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러한 가속화는 프랑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그 경향은 곧 미국을 비롯한 앵글로-색슨 세계, 이태리, 독일 등지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 — 그리고 이때가 또한 아주 일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 아날이 전 세계에 최대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때이다 — 모든 것이 역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었다. 가족, 성, 연령, 믿음과 감정, 상징과 표상, 생물학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사이에 경계가 불명확한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역사학은 특히 있는 그대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사회적 형태, 즉 예전에 사회과학들이 밝혀내고 해석하였던 것에 확실히 더 큰 관심을 나타내었다. 이 점에서 사회과학과의 연계는 이전의 심성사 *histoire des mentalité*를 그 프로그램과 야심과 수단을 약화시킨 상태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⁶⁾. 그것은 주의주의적인 통합의 형태를 띤다. 이 시기에 역사가가 자기의 연구방법과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 이제부터 가장 친근한 파트너가 된 인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의 저작들을 인용하는 것이 정상적일 뿐 아니라 의무적인 — 아마도 관례적인 — 것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면 그때 나온 저작들의 참고도서 목록을 보면 된다.

그런데 인류학과 사회학이 역사학의 첫째가는 주역들이 되었다는 것은 무관심할 일이 아닌 것이다. 오랜 동안 지리학과 경제학이 그 역할을 맡았었지만 그것은 아주 다른 조건 하에서 그랬었다. 지리학이 제안했던 것은 사회적 사건들이 공간에 새겨넣어져 있다는 것에 대한

6) 이러한 연속성에 대한 의미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는, J. Le Goff, "Les mentalités. Une histoire ambiguë", in J. Le Goff et P. Nora (eds), *Faire de l'histoire, cit.*, III, pp.76-94.

사고의 가능성과 동시에 현실을 강조하는 원칙이었다. 지리학은 역사학 분석에 구체적인 대상, 볼 수 있고 거의 만져볼 수 있는 대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였다. 경제학이 차지하는 위치는 이 학문을 통해 인간 사회들의 운명을 방향짓는 목중한 메카니즘을 보게 된다는 다소간 뚜렷이 드러내놓은 신념과 연관이 있었다. 그의 저작 『지중해 *La Méditerranée*』에서 브로델은, 1부를 인간과 장소와의 대화, 2부를 경제활동의 시간에 대한 것으로 구성함으로써 위와 같은 선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인류학과 사회학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것처럼, 역사에 대해 일종의 공외연 co-extensives이고, 또 역사학과 유사하게 대상이 불특정성을 띠는 그러한 학문분야들이 발전하면서 사정은 뚜렷하게 변화하였다. 학문간의 만남은 더이상 분야별로 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만남은 — 다소간 의도적으로 — 명확한 정체성이 조금씩 상실되어 가는 학문분야들을 통합해가는 방향으로 되어갔다. 아마도 이러한 것이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상당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표면화된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더 나쁜 결과는 사회과학 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15년 내지 20년 전에 비해 오늘날 더 약화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 시기에 역사학의 성취는 일대 장관을 이룰 정도로 성장하였지만 잘 콘트롤된 것은 아니다. 대상과 영역은 확대하였지만, 우선 그 제안들은 원래 원심적인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역사학의 폭발’이라는 말을 현 상황을 비난하며 폭로하는 것으로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성격으로 쓰기도 하고, 대개의 사람들은 그것을 단지 주어진 사실로서 받아들이지만 어쨌든 이 말은 — 아주 일찍부터 — 새로이 나타난 상황의 무질서함을 수식하는 증후로 쓰였다⁷⁾. 이

7) 내가 알기로 이 말은 노라가 1971년에 “Bibliothèque des Histoires”의 서론에서 처음 쓴 말이다: “우리는 역사의 폭발을 겪으며 살고 있다. ..” 그것이 다시 쓰인 것은 도스의 책에서인데 이번에는 논쟁의 초점

말은 역사학의 관심분야가 확대된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 말은 또한 이 학문분야의 내부에 통합성이 불확실하다는 것도 말해준다. 연구의 역동성 자체도 훨씬 심화된 전문화의 형태로 이끌어가며, 동시에 정보의 유통도 훨씬 어렵게 만들었다(예를 들어 1960년대에는 일반 사회사의 단순한 양식의 하나였던 역사인구학이 20년이 지난 후 기술적으로 크게 발전한 하부분야이면서 그 자체는 대단히 독자적인 영역이 되어간 것을 생각해보라). 특히, 획득한 결과가 누적되어가는 것일까 하는 점이 점차 불확실해졌다. 따라서 인식을 통합해 준다는 종합의 계획 자체가 문제로 떠오른 것 같다⁸⁾.

이런 진화와 이런 진단이 역사학에 고유한 것일까?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 현상태의 점점을 하려고 하거나, 더 의미심장한 것으로 자체의 역사로 비판적 회귀를 하려는 사회과학들이 (역사학에서와) 동시에 많다는 것이 우연일까? 아마도 그들 중 태반은 고난과 의심의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확고히 인정하는 데에는 주저할 것이지만 위기의 증후들은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서나 그 증후들은 특정 역사의 형태와 모순에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또한 사회과학 공동체의 계획 자체와도 연관성을 고려해 보아야 하며 이것은 적어도 두 차원에서 그러하다.

그 첫번째의 것은 아주 일반적인 차원의 문제로서 이 계획 자체의 의미와 가능성의 문제이다. 세기말에 태어난 이것은 — 사실 그것은 19세기의 거대한 과학성의 이데올로기 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이 되었다. F. Dosse, *L'Histoire en miettes. Des "Annales" à la "Nouvelle Histoire"*, Paris, 1987.

8) Cf. 두번 연속 나온 아날의 사실을 보라. "Histoire et sciences sociales. Un tournant critique", *Annales ESC*, 2, 1988, pp.291-293, et "Tentons l'expérience", *ibid.*, 6, 1989, pp.1317-1323. 또한 B. Lepetit, J. Revel, "L'expérimentation contre l'arbitraire", *ibid.*, 1, 1992, pp.261-265 도 참조하라.

다 — 우리 사회 전체의 파악이 가능하며 그 파악이 동시에 사회과학의 방법과 결과의 — 적어도 경향적인 — 합치를 보장해준다는 확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이 확신은 20년전부터 흔들리고 있다. 우리의 사회는 자체에 대해 더 불투명해졌으며, 이 사회의 현재, 미래,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거에 대해서도 불확실해 한다. 동시에 사회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포괄적인 건조물로 쓰이던 통합 패러다임이 무너져 앉고 그와 함께 이 패러다임들이 대체로 함께 공유하던 기능적인 모델들 역시 무너져 앉았다. 세 세대의 역사가들의 노력에 방향을 결정해주던 계획을 가지고 있던 전체사는 따라서 적어도 잠정적으로는 유보되었다.

두번째 차원은 더 기술적인 것이다. 자신에 대해, 그 통일성에 대해,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 자신감을 더 상실한 이 학문들 사이에서, 공동체와 교환의 체제는 깊은 변화를 겪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길을 밟았는지 간에 어쨌든 그 자체로서는 명백한 것으로 보였던 학문간의 상호연관성은 다시 의심스럽게 되었으며, 아마도 현재는 더욱 그렇게 되었다. 그 때문에 더욱 많은 대답이 생겨났다. 우리는 '인식론적 무정부상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유혹적이면서 동시에 성가신 것이다. 옛날의 표지들이 모두 지워진 지금 우리는 사회과학을 위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재구성해야만 하는 것처럼 되었다. 이 재구성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오늘날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예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현재 어떤 형태를 띠는가를 주목해보는 일이다. 그 첫번째 것은 부분적인 '재-분야정립'이다. 1970-1980년대의 경험은 장르의 융합의 방식이었다. 사실 역사학과 인류학, 또는 사회학 사이에 아무런 구분이 없다면 그것들이 만나는 것에서 어떠한 이익을 끌어낼 수 있겠는가? 관점과 작업과정의 독자성과 차이에 근거한 실질적인 유통을 보장해 줄 수 있을 '잠재력의 차이 *différence de potentiel*'(B. Lepetit)를 그것들 사이에 새로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만 한다⁹⁾. 그러므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문의 개별성의 이름으로 과학적 공간을 다시 구획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 각각의 것이 서로 중첩되지 않는 계획의 복수성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번째의 변화는 사회과학 안에서 역사학이 맡고 있는 역할을 재규정하는데 공헌하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학은 오랫동안 인간에 대한 지식들이 앞으로 종합될 전세계적인 장소이며, 혹은 조금 소박하게 말하자면, 그것들의 공동의 실험장소로 생각해왔다. 최근의 중요한 저작에서 파스롱 Jean-Claude Passeront은 베버적인 테마를 다시 조율하여, 사회과학 전체가 역사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었다¹⁰⁾. 이 주장은 상식적인 확실성이 하나도 없다. 법칙정립적인 과학 체제와는 달리 이 주장은 개별 과학성 체제의 존재를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 그 체제 속에서 해석 작업은 늘 대상의 구성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사고를 따르자면, 조만간 역사가와 다른 사회과학자들 사이의 험겨운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기존과는 다른 용어에 의한 것이 될 것이다.

9) 이 점에서 나는 르쁘티의 생각에 동의한다. B. Lepetit, "Proposition pour une pratique restreinte de l'interdisciplinarité", *Revue de synthèse*, 3, 1990, pp.331-338.

10) J.-Cl. Passeront, *Le Raisonnement sociologique. L'espace non-poppérien du raisonnement naturel*, Paris, 1991.